

#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이 더해지는 7월이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남긴 80여평생의 업적이 하늘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리워만지는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 김일성주석.

7월의 하늘아래서 우리 겨레가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는 그의 업적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아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생애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이 땅위에 거창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위인의 거룩한 한생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설속에 위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위인속에 전설이 있다고,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전설적영웅이시며 위인은 영생한다고, 수령님은 사상으로 영생하시고 업적으로 영생하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찍이 10대의 시절에 자주시대 인간운명개척의 보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이시다.

주체의 향로가 개척되던 그의 초기혁명활동시기는 백사람이 백가지 목소리로 혁명설을 내놓아 《혁명바람》이 범람하던 때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께 큰 나라에 가서 공부할것을 권고하였다. 그에 대하여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어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자고, 우리는 우리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처지와 사상감정, 요구를 알고 그들과 생사교락을 같이하면서 조선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거절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고전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기성리론의

명제에나 매달리고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주체의 진리를 내놓으셨고 선군의 총대와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더듬으시며 자신께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혁명의 주인을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사상을 밝혔다고, 이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도 하고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3년간의 반미대전도 하였으며 전후 북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도 하였다고 하시었다.

주체를 필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강철의 정치적신념과 드물지않는 배짱을 지니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자주강국건설의 목표를 내세우시고 전인민단위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방위에 주체강국을 세우시고 인민의 락원을 마련하시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자기 식의 로선과 방식대로 하고 외세의 온갖 간섭과 침략책동도 주체의 전략과 전법으로 단숨에 짓부셔버리신 수령님의 위인상은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전설처럼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전후 일부 나라들이 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안다고 단호히 배격하시며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견지하시었다.

어느 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큰 수력발전소 하나를 건설해놓고 조선에서 송전선을 늘여 전기기를 끌어다 쓰라고 한적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이 있었다. 당장 나라의 전기사정이 긴장한것으로 하여 쉽게 받아들일수 도 있는 문제였지만 수령님께서 는 그때에도 단호히 일축해버리시었다. 먼먼 그곳에서 전기를 끌어 오기 위한 송전선을 늘일바에

는 그 돈으로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수력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건설하는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수령님이시었다. 1960년대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로선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주체적으로시 이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자주의 신념과 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조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미국이 《조선은 석기시대로 돌아갔

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었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전반적무상치료제, 농업협동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견고걸으신 수령님의 현지도의 자욱자욱이 있어 오늘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이 활짝 펼쳐질수 있는 것이다.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따름을 위하여 남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리움의 7월과 더불어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박창학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수령님의 존함을 우러를 때면 이인위처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그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슴에 새겨보게 된다.

지난 세기 조국이 해방된 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근 반세기동안 수령님께서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울리시며 인민을 찾아 이어가신 현지도로정의 총연장길이는 무려 57만 8 000여km에 달한다.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300여번 왕복한것과 같고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도 맞먹는 기나긴 장정을 이으시며 수령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2만 600여개를 헤아린다.

조국의 북단 온성지구로부터 분계전선마을까지, 서해의 간석지마을로부터 동해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평생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 대해같은 포용력과 도량으로 민족성원들을 보살피신 인덕의 대성인이시었다. 그의 거레사사랑에는 부과 남, 해외가 따로 없었다.

고국을 왕래하는 해외동포들을 대할 때면 주석의 인품과 덕담에 대한 생각이 더욱 사무치게 갈마든다.

먼곳에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주석께서는 이역만리에 사는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도 참으로 많은 정을 기울이고 많은 배려를 돌려주셨다고 회고하는 해외동포들인것이다.

로씨야와 중국, 일본, 카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 삶의 리전을 정하고 민족성을 물려가는 동포들에게 기울인 주석의 크나큰 믿음과 다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중앙아시아륙의 조선동포사회에도 새겨져있다.

전 재조선인민보회 교문이었던 박영민동포에게 베푸신 주석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을 세우즈배끼기만동포들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지난 세기 해방직후부터 박영민동포의 민족적광성과

##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의 자그마한 바다가마음에 이르기까지 수령님께서 끝없이 새기신 자욱들은 그대로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일찍이 해방직후 조국에 개선하신 그이께서는 고향만경대를 지적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었다. 그이께서 언제나 한번 잊은적이 없으시고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찾고싶으신 만경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 땅에 하루빨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새 나라를 열며주시는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공장과 농촌들을 찾아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창에 빠진 승용차를 한 치한치 미시며 북방의 어느

에국집을 귀중히 여기신 주석께서는 그의 건국열의를 굳게 믿으셨고 교육과 문화예술부분의 여러 직책에서 새 민주조선건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조치해주셨다. 그러나 주석의 출중한 인품과 비범한 령도력에 감복한 그는 《고국에서 일하면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 정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난을 맞받아나가는

## 해외동포들의 추억

완강성을 지닌 회색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은뎀으로 느꼈다.》고 감동을 표적했다.

후날 조국을 방문한 박영민과 여러 동포들을 만나신 주석께서는 조국방우에 공민화국을 세우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피로써 정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들의 애국적공포를 높이 평가하셨다. 그러시고는 박영민동포에게 지금 88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그러자면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하시며 건강관리용 운동기구인 실내자전거를 보내주셨다. 그가 운명하는 마지막순간

산촌을 찾으신 이야기며 한낫이 다 기을 때까지 여러 논밭들을 돌아보시고 열차에서 꽃강병이로 때늦은 점심식사를 하신 이야기,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 지 않음바에야 무엇하러 광산에 왔겠느냐고 하시며 석수가 떨어지고 바다가 밀려오는 막장에까지 들어가서 광부들을 만나신 이야기, 어느 날 일요일에는 인민들을 만나시는것이 자신의 휴식이라고 하시며 강서와 풍강, 온천지구의 여러 단위들을 찾아 현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수령님.

인민을 위한 그의 사랑의 현지도도를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인민을 찾아가는것이 휴식이라 하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신 인민

이렇듯 인민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기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시책과 정책들에는 모두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과

과 설음을 뼈아프게 겪은 재기르그스스탄의 김 나자프동에게 고국방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후대교육의 증임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지혜와 애국심도 북돋아주시며 고국에서 사랑하는 교육자로 내세워주시분도 주석이시였다. 해방후부터 전후의 어려운 시기 조국의 민주에게지향화와 인민경제부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노력과 애국적열성을 남겼음이 발휘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으며 하시며 새해를 맞으며 친히 그를 표창하신 주석의 믿음과 사랑,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동포사회에 영연한 추억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그 믿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해외동포들은 고국을 마음의 와도 같은것이였다. 숨지 순간에 주석께서 수여해주신 해군소장의 장령복을 찾아 몸에 걸친채로 눈을 감은 그의 마지막모습을 통해서도 김일성주석은 해외동포들만이 아닌 민족성원모두가 할수처럼 믿고 따르며 열렬히 흠모하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라는것을 사람들은 페부로 절감했었던것이다. 지난 세기 망국민의 수난

이 그대도 반영되어있었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전반적무상치료제, 농업협동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견고걸으신 수령님의 현지도의 자욱자욱이 있어 오늘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이 활짝 펼쳐질수 있는 것이다.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따름을 위하여 남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리움의 7월과 더불어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박창학

의 아버지이시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 83(1994)년 6월에도 년로하신 고령의 몸으로 30°C이상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러 농촌을 찾아 현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 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의 길에 계신 일요일과 명절날이 무려 2 530여일간, 근 7년세월과 맞먹는다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얼마나 나라와 인민을 위해 크나큰 헌신과 로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렇듯 인민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기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시책과 정책들에는 모두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과

과 설음을 뼈아프게 겪은 재기르그스스탄의 김 나자프동에게 고국방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후대교육의 증임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지혜와 애국심도 북돋아주시며 고국에서 사랑하는 교육자로 내세워주시분도 주석이시였다. 해방후부터 전후의 어려운 시기 조국의 민주에게지향화와 인민경제부구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노력과 애국적열성을 남겼음이 발휘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으며 하시며 새해를 맞으며 친히 그를 표창하신 주석의 믿음과 사랑,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동포사회에 영연한 추억으로 남아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그 믿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해외동포들은 고국을 마음의 와도 같은것이였다. 숨지 순간에 주석께서 수여해주신 해군소장의 장령복을 찾아 몸에 걸친채로 눈을 감은 그의 마지막모습을 통해서도 김일성주석은 해외동포들만이 아닌 민족성원모두가 할수처럼 믿고 따르며 열렬히 흠모하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라는것을 사람들은 페부로 절감했었던것이다. 지난 세기 망국민의 수난

이 그대도 반영되어있었다. 해방후 토지개혁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전반적무상치료제, 농업협동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 진정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견고걸으신 수령님의 현지도의 자욱자욱이 있어 오늘 이 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이 활짝 펼쳐질수 있는 것이다.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따름을 위하여 남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리움의 7월과 더불어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다. 박창학

## 통일인사가 안긴 참된 애국의 품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주시 김일성주석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애국으로 생을 빛내인 사람들속에는 김규식 선생도 있다.

남조선에 있다가 공화국의 품에 삶의 닳을 내릴 때 그의 나이는 76살이였다. 그가 고령의 나이에 육신도 불멸한 속에서 요연성을 뽐내고 북으로 향할수 있었던것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것은 오직 한분 김일성장군님이시며 그의 정치를 따를 때 여생이나마 참담하게 살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 경상북도 울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미국 프린스턴대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교수로서 《상해리시정부》의 《부주석》으로 반공을 주장하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땀땀치 못한 생을 살아왔다. 해방후에는 서울에서 미국에 의해 조직된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의 장으로서 미군정청의 조종하에 중간정치세력내의 일부 인물들을 모아 《좌우합작운동》과 《반탁운동》을 벌리면서 민주진영을 파괴하는데 앞장섰었다.

외세의 장단에 맞춰 반공과 민족분열책동에 몰두하던 그가 자신의 지난날과 결별



아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해가는 근로자들

하고 애국의 길로 삶의 좌표를 정하게 된것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러 평양에 와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은 때부터였다. 당시 미국의 《단선단정》 음모책동으로 우리 나라에는 극도량단과 민족분열의 위기가 깊어가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국난을 타개할 대책을 의논하기 위한 련석회의를 소집할것을 발기하시고 김규식선생에게도 초청장을 띄우시었다. 그의 불미한 지난날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민족적광심을 더 중히 여기시며 회의에 청하시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그는 불린리하고 북행길을 단행하였다.

련석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가서도 그는 내외의 기자들앞에서 이번에 진정한 애국자가 어느분이신가를 똑똑히 알았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쁘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남조선감정과 《단선》놀음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그후 미국이 공공기를 해가면서 새로 서는 《정권》의 《부재통령》 자리를 주겠다고 떠나라가야 한다고 《합작》을 강요하였지만 그는 그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애국적지조

의 경중대회후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연회에서 연설을 하는 뜻있는 자리를 빌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나도 우리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겠습니까. ... 남의 장단에 춤출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것이 제일입니다. ... 남조선에서 온 대표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침을 따라 북조선에서 빛나는 민주건설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바로 그 길, 김일성장군님께서 밝혀주시 민족자주로를 따라 싸워나가는것이 제일입니다. 우리 민족자주전쟁은 바로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두다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련석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가서도 그는 내외의 기자들앞에서 이번에 진정한 애국자가 어느분이신가를 똑똑히 알았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나쁘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남조선감정과 《단선》놀음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그후 미국이 공공기를 해가면서 새로 서는 《정권》의 《부재통령》 자리를 주겠다고 떠나라가야 한다고 《합작》을 강요하였지만 그는 그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애국적지조

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이런 그였기에 가렬적절친 전화의 불길속을 헤치며 년로하고 병이 있는 불완전한 몸이었지만 결연히 북행길에 올랐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전시의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그를 마중해오도록 하시고 경치좋은 곳에서 휴양생활을 하도록 념려해주셨다. 그리고 그의 신병을 치료하도록 저명한 의료진을 보내주시고 귀중한 약제들과 생생에 필요한 식품도 보장해주도록 하시었다. 김규식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마운 은정에 감격하여 운명을 앞두고 이런 시를 남기었다.

수령님이시었다. 오로지 애국애족의 일념을 지니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이시기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오늘날 온 겨레가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한민족공통의 통일대장으로 더욱 빛나고있다.

세기는 바뀌어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리워하며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우리들이 김일성주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것은 어떤 리론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혁명생애, 민족애와 인간애의 력사에서 비롯된것이다.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수령이 우리 민족의 령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집했다.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이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그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만든 첫 위성이 하늘높이 날아올랐으며 조선의 CNC가 최첨단을 돌파한 가운데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비날론폭포가 쏟아지는 경이적인 사면들이 펼쳐져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만년토대가 축성되었다.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인민이 만복을 누리려는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다.

세기를 이어 걸출한 위인들을 모신 민족의 자랑 끝없는 그리움의 송가로 울려 퍼지고 온 나라 인민은 아버지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리해영







# 이른바 《형식지배》론을 평함

최근 모처럼 진행되게 되었던 북남당국회담은 이전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을 변함없이 계속해나가는 현 남조선당국의 고의적인 책동으로 인하여 끝내 무산되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역사에 도 없는 《격》과 《금》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북과 남이 당국회담의 자리에 마주앉지도 못하게 만든 밑바탕에는 이른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론리가 독사처럼 파리를 물고있다.

북남당국대화가 무산된 다음날인 6월 12일 청와대관계자는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무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을 종종 썼다. 굉장히 일리있는 말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그의 말은 결국 수석대표의 《격》이라는 형식문제가 회담에서 론의할 내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것이 바로 현 당국자의 의도라는 것이다. 회담이 왜 깨졌는지, 누구때문인지 이 말에 명백히 언저온다.

실제로 6월의 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한 남조선당국자는 이를후 어느 한 외교장관에게서 《형식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이는것만큼 내용을 지배할수 있게 때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다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때문에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되었는가.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일따름이다.

다 아는것처럼 모든 사물현상들은 어느 고유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며 그것들은 호상의존하고 제약하는 관계에 있다. 내용을 떠난 형식이 있을수 없고 형

식을 갖추지 못한 내용도 있을수 없다. 내용은 형식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형식은 내용에 따르면서 그것을 표현한다.

주목할것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규정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러는것이다.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것은 내용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은 내용이 제약하는 한계를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영리한 경우에 그것이 다부작이나, 단부작이나 같은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하는것이 시정체를 좌우하는 기본원칙인것처럼 형식에 비한 내용의 결정적우위는 더 못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니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적 없는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아니할수 없는것이아니다.

내용이 형식을 규제하고 지배하는것은 북남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남당국회담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많은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여기에서도 회담에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대표들이 마주앉아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가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또 회담의 목적이라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두차례의 평양상봉이 오늘도 길이 추억되고 찬양되고있는것은 분열력사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만났다는 그 의미를 넘어 불신과 대결의

오랜 역사를 화해와 협력, 통일 의 새로운 력사로 바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었기때문이다.

6월에 열리게 되었던 북남당국회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풀어진 가축, 친척상봉문제, 북남간단체들사이의 대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6.15공동선언발표 13돐 민족공동행사실현과 7.4공동성명발표 41돐을 북남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들이 회담의제로 설정되어있었다. 하나하나가 북남사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도 긴절한 문제들이다. 그것이 그대로 합의리행될 때 5년이상이나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북남관계와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처럼 중하고도 중한 문제를 마주앉아 해결하는것보다 《격》과 《금》이 더 중요하였던가. 아니 그 반대이다.

그러나 《형식》문제를 양보할수 없는 《원칙》으로 내댜 남측당국의 무지스럽고 무례하기 그 지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이 마주앉지도 못해보고 회담이 무산되고말았다.

결과 회담을 한다고 세상에 소리란 요란히 내고 남은것, 걸어 현재 하도록 없게 되었다. 북남관계는 북의 대화제의 이전의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두가 고대하던 정세전환의 소중한 한차례 기회도 놓치게 되었다. 겨레의 가슴속에 부풀어오르던 기대와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남측은 《신뢰》를 운운하

며 《격》을 고집하였지만 그 결과로 초래된것은 불신을 더욱 키운것뿐이었다. 개성공업지구에 자산을 둔 남측기업가들과 혈육과의 상봉을 에라게 고대하던 고향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은 회담무산으로 말그대로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비유하여 말하면 남측당국은 어이없게도 밭상타밭만 하다가 귀한 잔치상을 통째로 뒤집어엎고 동네잔치를 망쳐놓았다고 할수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에 《형식》(격과 금)을 운운하며 형식을 깬것도 다름아닌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 같다.

남측은 실무접촉의 시작부터 회담이 무산되기 하루전 마지막날까지 시종 북에서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오라고 억지다짐으로 요구하였었다.

북의 통일전선부장은 지금껏 북남당국회담에 한번도 중간적이었고 직급으로 따지면 남의 통일부 장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나오라고만 했으니 형식, 격을 깨는 무지하고 무례한 행위였다.

그것도 모자라 남측은 북의 회담수석대표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한것을 헛담과 시비질을 늘어놓았으며 비하하였던가.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남측의 통일부가 북의 대화상대를 부정한것이다. 북에는 북남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한 공식기관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밖에 없는데 이것을 부정하였으니 앞으로 대화는 어떻게 하겠다는것이고 북의 대화일꾼들과 어떻게 머리를 들고 마주앉을

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말그대로 지금껏 제대로 되었던 대화의 틀(형식)과 《격》을 운운하면서 부정하고 차버린 셈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제 중심으로 《장관급회담》을 하고 제의 해놓고는 북의 상급단장이 나오게 하여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으니 이것 또한 형식을 깨는 무지막직한 행위가 아니었던가.

한마디로 남측당국은 말도 안되는 《격》, 《형식》라명만 늘어놓다가 내용도 형식도 모두 날려버린것이다.

게도 구력도 다 놓쳤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 같다.

현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대화파란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집권자가 이전부터 《형식지배》론을 신조어로 삼아온것처럼 선전하고있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진실인가 하는것이다.

지난 5월 29일 남조선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던 《창조경제비전포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이어 6월 4일에는 역대 《정부》들이 판례로 해오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관계자는 그때마다 《보여주기행사를 지양하라.》는 집권자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해놓은 일(내용)이 없으니 불필요하고 요란한 형식을 차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북남대화에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고 하고 어떤데서는 그 반대로 행동을 하니 어느 것이 과연 그의 진정인가 하는

것이다.

한가지 실례를 더 들어보자. 최근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선거》기간에 발생하였던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 현 보수 《정권》의 집권을 위해 《새누리당》과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총발동되어 조직적으로 감행한 관련 《선거》부정행위였다는것이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빚고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그들의 《리론》을 이 특대형사건에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선거》라는 《형식》자체가 부정되고 법죄였으므로 그 내용인 《선거결과》도 마땅히 부정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그들의 《리론》을 이 특대형사건에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선거》라는 《형식》자체가 부정되고 법죄였으므로 그 내용인 《선거결과》도 마땅히 부정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결국 남조선당국의 이른바 《형식지배》론은 제가 판 함정에서 제가 빠지는 론리적으로순박해 불러올것인 없는 허황한 잡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유독 북남대화회담에 《형식》의 자태를 내놓아 왈가왈부한것이야말로 당국회담을 고의적으로 깨기 위한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라고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이전 통일부장관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부당한 억지주장을 끝까지 고집하여 회담자체를 무산시킨 당국의 처사를 두고 《상대가 가장 원하는바를 내놓는 자리에 상대방이 가장 거부하는바를 적은것이다. 거래를 깨고싶은 도저함이 없다면 결코 할수 없는 일이다.》, 《형식때문에 내용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며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있는것이다.

하다면 남측은 북남당국회담을

왜 무산시켜버렸는가.

원래 남측은 당국회담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문제를 비롯한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할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자제도 없었고도 해야 할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집권 첫날부터 《대북제재》소동에 혈안이 되고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를 피우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공화국의 대법하고도 성의있는 대화제에에 마치 못해 오히려나섰지만 속으로는 계속 탄생을 꾸고있었다는것은 엄청난 사실이다. 하기에 실무접촉때부터 허황한 억지주장을 고집하며 회담성사에 갖은 장애를 조성하였고 한쪽에서는 《기대를 가지지 말라.》, 《나무 서러서서 안된다.》, 《회담이 열리면 북의 책임을 따질것》이라는 등 모처럼 마련되어가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마구 일삼았던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당국회담이 무산되자마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어 회담문제는 뒤전에 밀어놓고 《북핵포기》를 위한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소동에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는것은 북남관계전진을 바라지 않는 그들의 대결수심을 더욱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밝은 세상에서 거짓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형식지배》니, 《원칙있는 대화》니 뭐니 하며 무슨 오그람수를 부러도 북남대화를 고의적으로 파란시킨 저들의 비열한 책동을 가리울수 없으며 책임이 벗어날수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선일군의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속에 품은 대결의 칼을 버리고 하며 부당한 억지주장을 버리고 북남관계전진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에 부응하여야 한다.

김철민

## 《새로운 남북관계》? 대결정책부터 버려야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속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라는 귀에 설은 말들이 종종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는 얼마전 의국형각시 《북측 지금은 남북이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있지만 저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임명장식여식에서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훈시했다.

그의 본을 따라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도 저들의 대결책동이 초래한 북남당국회담무산이 《새로운 남북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며 《수석대표급을 맞추는것은 남북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새로운 남북관계》지립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도 《국제적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기의 북남관계를 저들의 일방적인 《굴종과 굴욕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과거에 해왔던것처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북의 행태는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철면피한 언행으로 북남대화를 파란시키고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하고있다.

그들의 말을 귀여짚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래 힘차게 전진해온 6.15통일시대의 북남관계는 상식과 규범이 통하지 않고 남측의 《굴종과 굴욕》으로 일룩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라는 소리이다.

케번도 이만저만한 케번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바와 같이 북과 남은 통일을 지향해나가

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단순히 국제관례나 규범에 따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북과 남은 한리족출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립장에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풀어나갔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사이에는 21차례의 상급회담과 10여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수백차례에 달하는 회담과 접촉, 교류, 공동행사들이 마련되었으며 거기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을 반영한 좋은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북과 남은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면서 민족의 리익과 공동번영을 먼저 생각

하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켰다.

6.15시대에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그 무슨 《굴종》과 《굴욕》의 관계로 써는 이룩될수 없는것들이었다.

《6.15의 육동자》, 화해와 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하나만 놓고보아도 공짜나 다름없는 도지사용료와 임대료, 세금과 같은 혜택을 내놓은 북측의 뜨거운 동포애와 아량이 없었다면 생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현 남조선당국이 《새로운 남북관계》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현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싶다면 지난 《정권》시기에 대결과 전쟁으로 치달아온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관계로 돌려세워야 할것이다. 그

리자면 이전 《정권》의 대결정책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말로는 《신뢰》니, 《대화》니 하지만 현 남조선당국이 하는 행동과 지들은 지난 《정권》시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더욱 교활하고 악질적이고 해야 할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새로운 남북관계》라령의 뒤면에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저들의 비위에 맞게 일방적으로 뜯어부쳐려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벼돌어진 심보, 대결의식이 뿌리깊게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 대결적인 사고관점과 자세로는 언제 가도 오늘의 최악의 북남관계위기를 해소 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운운하기에 앞서 저들자신의 구태의연한 대결정책부터 버려야 한다.

김진혁

## 대결과 불신을 포장한 《신뢰》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하면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창하였다. 그 골자는 북남간에는 작은 일부터 호상간 신뢰를 쌓아 그것들을 기초로 점차 관계개선도 하고 통일도 하겠다느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떠드는 《신뢰》가 무엇인지 남조선보수당국의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가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따지고보면 수뇌상봉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역시 《대통령기록록》로 되어 엄격한 비밀에 붙여져왔다.

더우기 수뇌상봉담화록과 같은 문건은 담화를 진행한 해당 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공개하는것이 하나의 외교관례이다. 그런데 남조선보수세력들은 공화국과 토의도 없이 초보적인 외교적도덕과례의를 짓밟은채 일방적

으로 공개한것이다.

민족의 운명문제, 북남관계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한 북남수뇌상봉까지 정경의 회생물로 삼은 이러한 강대무리들이 북남사이의 《신뢰》에 대하여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남조선보수세력들이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것은 추악한 정치적악용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도 최고리익도 서슴없이 짓밟는 가장 추악한 반역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적대결망동의 극치로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우렁이그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결국 그들은 북남사이의 《작은 일에서부터의 신뢰》라는 구실밑에 온 민족의 통일념을 담아 북남수뇌분들이 서명하고 채택한 조국통일 의표인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송두리채 파괴하고 그 폐허에 대결의 기초만 더욱 공

고히 하겠다느것을 언명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드는 북남사이의 《신뢰》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이바지하는 마음보다도 대결의 흥심만을 속에 품고있으니 과연 북과 남사이에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이번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는 그들이 떠드는 북남사이의 《신뢰》란 불신을 포장한 한갓 미사려구이라는것을 다시금 푹푹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만적인 《신뢰》라명만 할것이 아니라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의 일방적인 공개와 같은 반민족적악에 대한 사죄부터 하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 당국의 비렬한 망동을 비난

6월 26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전면공개한 당국의 비렬한

망동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비밀을 폭로하기보다는 잘 지키는것이 기본이라

고 썼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오히려 기밀문서로 되어있는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여 정치적대립을 초래하였다고 신문은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당국자들이 지난 1일 발표된 공화국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담을 두고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사》, 《유감》이니 하고 시비질하는가 하면 《진정성 있는 대화》요 뭐요 하는 불평도 늘어놓고있다.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마련되었던 북남당국회담파란의 책임을 모면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가리우려는 유치한 말장난이라고밖에 평가할수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리명박 《정권》이 5년간 의도적으로 자행해온 모략과 파란책동으로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진정으로 북남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또 지난해 《대선》때 내들었던 공약을 얼마라도 리행할 의지가 있다면 대법한 공화국

의 북남당국회담제안을 성의껏 받아들여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실무회담때부터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성의없이 나오다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격》이요, 《금》이요 하면서 양척같은 문제를 고집해나감으로써 끝내는

## 쓸데없는 시비질

회담을 파란으로 몰아갔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군부는 공화국의 대화제가 있는 다음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도발에 확고히 대비하겠다.》고 떠들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의한 《맞춤형억제전략》을 운운하는 도발적행동을 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안에서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반복통

의 불법무도한 정치적배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한 보수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를 규탄하는 남조선각계의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보수세력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파초적인 탄압에 몰두하면서 《총복》소동으로 각계의 이목을 떠돌려 밀부리쳐 뒤흔들리는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정의와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범민련이 가는 길은 정의의 길이며 해내의 의은 거래와 함께 자주통일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애국의 길이기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 탄압으로도 범민련의 투쟁을 꺾지 못할수 없다.

범민련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통일운동탄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진정성을 가리우려는 파란공작폭거

선을 수용》하고 《리적행동》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악명높은 《보안법》을 같이 체포하는 파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정의와 통일애국에 투철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나아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눈에 든 가치척폭거를 걸어낸것이다.

이것은 정의와 통일애국에 투철하고 북남공동선언리행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나아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눈에 든 가치척폭거를 걸어낸것이다.

권지혜



지난 6월 북남당국회담이 무산된 후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는 《진정성》 발언이 더 자주 울려나오고 있다.

《일방적으로 굴욕당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없는 대화》. 《북에 진정성이 있는 대화의지를 보여줄것을 촉구》. 《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이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 북남 대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력에 대해 이번 《진정성》이니 뭐니 하는것은 변함없는 대결을 추구하는 현 남조선당국이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 말이다.

문제는 《진정성》이 없는 대화상대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퍼진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는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내세워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론의 비난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전면공개한 당국의 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시국선언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6월 5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21일에는 《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리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수많은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너도나도 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운동에 떨쳐나섰다. 지식인, 종교인, 일반시민을 비롯하여 여론은 물론이고 나 어린 고등학생들까지도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대학교수들도 저마다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6월 26일 한양대학교와 성균

# 담화록공개와 《진정성》

원래 수뇌상봉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되어있으며 일정한 기간 공개하지 않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북남 대화의 역사에서도 그것은 불문가지의 사실로 되고 있다.

그런데 남측은 이번에 그러한 상식, 관례, 법도를 뛰어넘어 최대로 신성시되어야 할 2007년에 있는 북남수뇌상봉의 담화록을 일방적으로 전면공개하는 친하담동짓을 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북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고 앞으로의 북남 대화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화록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친하담동을 버 것이

저지른 남측당국에 북남 대화 를 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 진정한 마음과 의지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진정성》이 있다면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문제를 애당초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을것이다. 북이 유령선으로 간주하고 위협천만 한 총들의 불사를 함시적으로 안고있는 이른바 《북방한개선》 문제라든것을 지금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갈 의향을 표시하였었다. 얼마전 남조선의 《새누리당》도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결국 그것을 공개하여 정쟁의 료락물로 삼았으니 진정성이요물만삼고 없는것은 남측당국이다.

10.4선언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으로서 우리들 겨레가 지지찬동해마지 않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대강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전진시키기 위해서도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해 나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이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갈 의향을 표시하였었다. 얼마전 남조선의 《새누리당》도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고 정쟁의 료락물로 삼았으니 이것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의 바른 궤도

에 다시 올려놓기 위한 좋은 행동이라 할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 반대이다. 6.15와 10.4선언을 리행하겠다는 남측당국의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고 여론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현 남조선당국이 말하는 《새로운 북남관계》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이 자초한 북남단절의 력사, 대결의 악순환을 끊는 바로된 북남관계는 공동선언리행이 그 첫 출발이고 과정이며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그 력사적인 10.4선언을 휴집을 내리는 어떠한 행위로 북남대결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용납 못할 행위로 되고 온 민족의 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이 결락하고 그 배후에 청와대까지 개입한 사상 전례없는 특대형범죄, 《정권쿠데타》로 락인적 당국자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촉구 하고있으며 심지어 현 보수 《정권》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당국자의 지지를 급격히 떨어지고있는 결과도 맺어지고있다.

현실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를듯 높을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보는 현 당국이 기만적인 파쇼정치, 대결정치를 그만두라는것이다.

일마침 남조선에서 시국선언운동은 단순히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민심을 거역한 변역 《정권》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민심에 역행하면 언젠지 쫓겨나 심판을 받기마련이다.

본사기자 서희

# 권력강탈을 위한 비렬한 행동

최근 남조선에서 만인이 경악하고있는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에 보수집권세력이 관련된 새로운 음모자들이 현이 더러나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부산에서 담화록의 일부를 공개한 사실, 종합상황 실장이었던 권영세가 《집권하면 (NLL) 담화록을 까겠다》고 한 특유자로 등이 들어있다.

권력과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특대형죄도 감수없이 저지르는 자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위급회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비밀로 간주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더욱더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분렬되어 60여년이 흘렀고 사상과 제도, 리념이 다르지만 한 피를 이은 민족이고 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관계로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 특수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보수집권세력은 다른 문건도 아닌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내놓고 떠들었으니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의 잡투를 쓰고보자는 너절한 정치적야욕때문이다.

김무성이 지난 6월 26일 《지난해 (대선) 을 앞두고 정상회담담화록을 일부씩 읽어왔다. 원세훈(당시 정보원 원장)에게 담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

데 협조를 안해줘 결국 공개를 못했다.》고 실로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도 《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사건은 한마디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전포고》, 《정상회담담화록이 (대선) 당시 불법적경로로 류출됐고 악의적의혹과 불법적 《선거》 공작의 도구로 오염됐다는 의혹과 증거가 다시 드러났다.》, 《파렴치한 정치공작과 비렬한 범죄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참을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이어 《새누리당》의 일부 인물들까지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정치권에 뛰어들 때는 이미 지났다. 지난해 군사독재시절 통치강화를 위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수준을 넘었다.》고 개탄하고있다.

현실은 담화록공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색갈론》과 《종북》 광풍으로 《대선》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흉심에 불 보습선세력이 이미 전부터 획책해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집권과 권력잡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다는것이 이번 자료폭로를 통해 더욱 명백해졌다.

이우를 보고 《신뢰》요, 《진정성》이요 말할 자격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신뢰》와 《진정성》을 론하겠다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할것이다.

서철수

# 시국선언운동으로 보는 남조선민심

관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데 이어 그 다음날에는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교수들이 보수당국의 망동을 단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5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에는 《한국대학생연합》이, 21일에는 《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리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수많은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너도나도 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운동에 떨쳐나섰다.

지식인, 종교인, 일반시민을 비롯하여 여론은 물론이고 나 어린 고등학생들까지도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대학교수들도 저마다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6월 26일 한양대학교와 성균

민봉기로 이어져 리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1970년 대말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유신헌법》 폐기, 대학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시국선언운동을 벌였고 1979년 10월 《유신》 독재는 끝장나고말았다.

지금 남조선에서 시국선언운동이 다시 일어나고있는것은 그만큼 사회정치적위기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폭로된 정보원의 《대선》 개입사건은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감행한 엄청난 《선거》 부정행위이다. 여기에는 현 청와대인의 인물들과 《새누리당》 등 현 집권세력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조직적으로 당선날조를 위한 비렬한 책동을 벌리었

다. 사건의 엄중성을 따지면 《선거》 결과가 부정될수도 있는 큰 사건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는것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저들의 비렬한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전면공개하는 친하담동짓을 꺼리낌없이 감행한것이다. 이것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 인민들의 항의집회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시국선언운동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더우기 현 《정권》이 발족해서 몇달밖에 되지 않은 초기에 《정권》의 밑뿌리를 뒤흔드는 시국선언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시국선언참가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이번 정보원의 《대선》 개입사건을 놓고 정보기관과 여당



# 《핵포기》소동의 진의도

지난 1일 브루네이에서 열린 아세안리레의무상회의기간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 에 《외교관회담》이 벌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남조선의 외교당국자가 《북에 대한 유엔결의안리행의 압박》이니, 《북핵문제와 관련한 공동전략장구》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압박공조를 제창한것이다.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이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자들에게서 난 나올수 있는 주책없는 언사라 해야 할것이다.

《핵포기》소동을 일으켜서 남조선보수당국은 《핵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월 16일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증대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의지를 천명하면서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조미당국사이 에 고위급회담을 가질것을 공식 제안하였다.

공화국의 조미직접대화 제안은 발표되자마자 유엔국들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만은 공화국의 대화제안에 대해 《통미봉남전술》이니, 《평화공세》니 하며 그 진의를 위곡하고 깎아내리려고 분주당을 꾸며 썼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는 미국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게 되면 북이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데 시간만 쏠뿐》이라는 꾀를 늘어놓으며 북과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독기를 풍기었다.

그때 과연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하려는 바른 자세라고 말할수 있는가.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조미생방이 마추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분수없이 나서서 이러쿵저리쿵 하고있으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이 유난할수 없는 외세공조에 한사코 매달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의 강위력한 자위적책무장을 거세하고 수십년간 이루어지 못한 《북진통일》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것이 바로 그들의 본심이다.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정책이 초래할것은 위기심화와 총돌,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공조책동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를 명심하고 민족공조의 참된 길로 나가야 할것이다.

김철호

# 정보원 원장의 사퇴를 요구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전면공개한 정보원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 26일 《국회》에서 정보원의 이번 담화록공개로 남조선의

외고는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고 개탄하였다.

현 집권자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정보원 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밧은지 60년이 되어오지만 전쟁은 아직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다. 전쟁을 종결짓는 제도적장치가 구축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침략의 산물이다.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세계최대의 열적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전쟁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있다.

원래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전쟁때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저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해낸 침략전쟁도구이다.

1950년 7월 7일 몇몇 추종국가들로 일방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한 미국

# 《적절한 조치》

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최포를 다스릴 능력도, 마음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라는데는 어떤것인지 물어보나마나하다.

10여년전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뭉개 총악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무죄》라고 뻔대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눈감고 참아야 한다.》 단자들이 이번 도청사건도 《아니》라던

그런척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사실》이라고 해도 뭐라 대꾸할 소리 없을것이고.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범죄이건 주권강탈이건 《무조건 찬성》, 아니면 《물먹은 병어리》, 이것이 아마 그들이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일것이다.

김정혁

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최포를 다스릴 능력도, 마음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라는데는 어떤것인지 물어보나마나하다.

본사기자 리광성

# 《국익》? 《공급중》?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는 친하담동짓에 대한 여론의 규탄이 높아가자 궁지에 몰려 그 무슨 《국익》을 우선해 국민들의 공급중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어리석게 말해하고있다.

담화록을 공개한 진책수심은 감추어둔채 늘어놓는 변명은 구차하기만 하다.

일마침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 공개가 북남관계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군의 리익에 배치되는 범죄행위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국익》이니 뭐니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국민들의 공급중》을 풀기 위해 담화록을 공개했다 는것도 생뚱맞은 소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보다도 공동

선언의 착실한 리행에만 관심이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진짜 궁급해하는것은 다른데 있다. 《쿠테타》로 집권한 이권독재자들이 미국상선의 인준을 받기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털어내야 하는 대가를 바쳤는지, 리명박이 부패대통령과 골로차에 같이 라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수입 등 얼마나 많은것을 양보했고 민족의 신성인 영토인 독도를 놓고 《지금은 곤란하니 좀 기다려달라.》고 일본에 애걸한 그 내막은 어떤것인지, 미국에 바치는 《방위비분담금》이 왜 갈수록 늘어만 가는지, 미국이 남조선대사관을 도청한 내막이 어떤것인지 등 그 공급중을 일일이 따지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 보수당국은 민심의 이러한 궁급중은 모두 외면한채 《국익》과 《공급중》을 떠들며 생뚱맞고 북남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추한 권력야욕심현에만 눈이 멀어 돌아서는 이리저들에게는 민심의 처주와 배격밖에 차려질것이 없다.

리명진



망 각



# 평양의 새 명소 - 해당화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해당화관이 새로 일떠섰다.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과 마주서있는 해당화관은 문을 연지 얼마 안되지만 이곳을 찾는 수많은 손님들로 흥성거리고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재미동포는 평양의 해당화관이 미국에도 알려져있다고 하면서 평양에 온 기회에 우정 시간을 내어 해당화관에 찾아왔다고, AP통신 기자들이 해당화관은 사람이 한곳에 와서 하고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기에 무슨 소리가 했더니 우연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해당화관을 찾아 첼관구이집의 음식을 맛보고 최고이다, 첼관구이를 평양에서도 할줄은 몰랐다고 자기의 소감을 펴력하였다. 평양주재 외국대사관성원들과 외국의 방문객들도 해당화관을 자주 찾곤한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해당화관은 평양의 새 명소로 떠오른것이다.

해당화관은 현대적인 금양 및 편의봉사시설을 갖춘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이다.

지하주차장과 지상 6층으로 된 이곳의 1층에는 식사실들과 상점, 2층에는 첼관구이집과 연회장, 여러개의 식사실들이, 3층에는 초음파시설과 덕수터가 있는 물놀이장과 목욕탕이, 4층에는 한증방과 리발, 미용, 미안, 안마실들과 휴식실, 탁구장과 당구장, 체육운동실이, 5층에는 로리스들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갖춘 각종 시설들이, 6층에는 유명한 커피와 차, 햄버거 등을 봉사하는 원형커피점이 자리잡고있다.

갓가지 봉사시설들만이 아니라 현대적미감에 맞게 유리외 돌로 품위있게 장식한 건물외벽, 조선식건축양식을 살려 치미로 맵시있게 처리한 지붕, 예술품을 방불

케 하는 내부장식들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나무장식재와 대리석, 타일, 벽지, 거울과 수지루팡석 등 건식마감재료를 가지고 재주를 부려 만든 하나의 창조물들은 볼수록 경탄을 자아낸다. 어떤 사실은 마치 먼 옛날 농촌 집뜨락에 앉아 식사하는듯한 감을 주게 하고 연회장들은 해당화가 피어나고 소나무 우거진 시원한 바다가 백사장에 들어선듯 한 느낌을 준다.

당구장안의 벽시계를 신통히도 당구알과 당구판을 모방하여 제작한것을 보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얼마나 품을 들여 시공하고 설계하였는가를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사람이오 말하면 안팎으로 멋쟁이인셈이다. 그래서 한번 오면 또 오고싶고 들어서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이 해당화관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본사기자 박금일

## 부귀영화의 그날이 보인다

어제는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이 일떠서더니 오늘에는 해당화관이 문을 열어 우리 인민에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해당화관에 처음 와 보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물놀이장의 덕수터는 높이 솟은 천원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그대로 모방한것으로 하여 마치 모향산에 온듯한 감을 주고 식사실들은 민족적건축양식을 특색있게 살려 장식한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를 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훌륭한 해당화관과 같은 봉사기지를 앞으로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정녕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방방곡곡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과 물놀이장, 해수욕장, 경마장을 비롯한 문명한 생활거점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를 드러내고 있다.

평범한 우리 근로자들이 세상에 보란듯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 그날은 멀지 않았다.

해당화관을 통해 나는 확신성있게 그날을 눈앞에 본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공공 문강순

해당화관에서 제일 특색있는 곳은 첼관구이집이다. 3층과 4층에서 각종 체육운동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손님들은 배가 출출하면 2층의 첼관구이집으로 내려온다.

첼관구이집은 손님들의 눈앞에서 로리스가 직접 여러 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가공하여 봉사하는 특색있는 식당이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흥미와 구미를 돋이기 위해 로리스가 만드는 매 로리들의 맛과 영양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후추통과 칼, 포크 등을 가지고 교예사처럼 기교도 부리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해당화관의 봉사원 김정일은 명절날이나 휴식일같은

날에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말하였다.

첼관구이는 혼자서 봉사받을수도 있고 십여명이 로리스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서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할수도 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육류동에서 사는 김명옥녀성은

면 로리에 술을 부어 불을 달면 음식물의 잡내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하며 손님들의 쌓였던 정신적피로도 풀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첼관구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대단하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해당화관의 첼관구이가 정말 맛이 좋다고.

원래 첼관구이는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에 조선민족의 구미에 맞게 받아들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였다.

첼관구이집은 조선민족의 전통음식뿐 아니라 세계의 발전된 음식문화도 받아들여 조국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문명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공화국의 21세기 문명강국건설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본사기자

##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해당화관에 들어서면 누구나 제 집에 온것처럼 편안한 감을 느낀다.

식사실들에 놓여있는 의자 하나만 보아도 사람이 앉을 때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섬세하게 타산한것이 알린다. 은근하고 안정된 감을 주는 벽색갈과 조명등, 친근감을 주는 곡선식, 부드럽게 처리한 내부장식들...

해당화관설계에 참가한 평양도시계획연구소 김철용설계가는 선 편리성, 후 미학성의 원칙에서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해줄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화관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치지도를 받으면서 선 편리성, 후 미

학성의 원칙에 담겨있는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가슴 후덥게 받아안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지난 4월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에 갖추어진 금양과 편의봉사, 체육단련과 로리전습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목욕탕의 물은도도 손수 가능해보시고 로리스들이 인민의 봉사자, 총북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 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해당화관을 돌아보시면서 설계와 시공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정말 잘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면서 앞으로 해당화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마음쓰시었다.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다니는 허리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화관과 같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하기에 해당화관을 찾는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으며 부강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애국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온라인세계프로그램경연에서 1 위 쟁취

얼마전에 진행된 온라인세계프로그램경연에서 공화국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하고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쳤다.

인터넷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이 경연에는 희망하는 조는 다 참가할수 있다. 이번 경연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3 400여개의 조가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세계적인 8대온라인경연중에서 짧은 경기(4시간미만)와 긴 경기(10시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 경연은 가장 인기가 높은 경연이다. 이번에 진행된 경연은 10일동안 진행되는 긴 경기였다.

공화국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응용수학부 리주성, 김현일, 정보과학대학 유창진, 김성국학생들로 무어진 한계 조가 경연에 참가하였다.

경연에 제출된 문제들은

높은 수학적식과 알고리즘 실력을 겸비한 고급한 프로그램작성기술을 요구하는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었다. 모두 10문제중에서 1문제는 도전문제였다. 도전문제는 성적이 같아지는 조가 없게 등수를 명백히 하자는 의도에서 제시하는것으로서 승부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경연에 처음 참가하지만 선군조국의 대학생이라는 만만한 배심과 평시에 다져온 높은 실력으로 제시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훌륭히 작성하여 1위를 쟁취하고 인터넷상에 공화국기를 자랑스럽게 높이 띄웠다.

온라인세계프로그램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1등을 쟁취한 소식은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 자기를 찾은 사람 (9)

글 량 홍 일, 그림 김 윤 일

지근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수그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일은 참 안됐지만 세상이 이렇게 떼먹은걸 어쩔수는 없지 않느냐?! 워낙 이놈의 세상이야 리승만 때부터 미국인들이 요구하는 것이란걸 실익은것이면 썩은 것이든 그냥 받아먹는데 습관이 된 땅이 아니냐. 나쁘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쿵저리쿵해야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누구의 정치가 옳소, 나쁘오 하면서 성난 소처럼 랑뽕을 세우고 골반이 질해서는 리로울게란 하나도 없다. 우리같은 백성들이란 그저 그때그때에 맞게 제 살 궁리나 챙기면 되는거야.》

《그렇기때문에 아버지 자신은 소처럼 사는것을 옹호한것으로 생각하고있는게오. 누가 아버지를 비롯한 술한 사람들을 소가 아닌 인간소로 만들었나요? 뭇백성이 주는 헌누테기라도 없으면 엄동 설한에 얼어죽을수

있는 알몸뚱이나 같은 신세로 살아야 하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경계가 발전된 나라》요, 《고도성장국가》요 하지만 외자가 없으면 남의 빚더미에 앉아 자신을 한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실태가 아닌가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진 지근우는 자신이 더없이 몇적게 느껴졌다. 아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는 근본을 모르고있었다. 더이상 리성을 잃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불난 송아지처럼 너무 헤메이지 말아. 아무렴, 세상 보는 눈이야 된장을 한술이라도 더 먹은 이 예비가 낫지 네가 낫느냐? 아무리 정오, 량심오, 민주오 하며 목리지게 웨쳐왔잖아. 자 얼을것이란 류치장방엔 간소로 만들었나요? 뭇백성이 주는 헌누테기라도 없으면 엄동 설한에 얼어죽을수

그는 담배를 길게 빨고나서 한숨을 내뿜듯 연기를 뿜어냈다. 인생살이란 보고도 못본척,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지키는 일이나 수격수격 하는 소처럼 사는게 제일이다. 팬스레 옛드레질을 하다가는 모난 돌 정대에 맞는 격이 되고 만다. 더우기 이놈의 세상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이 오죽이나 많은가. 무엇보다 이 못난 세상에 나왔겠는가 후회를 하느니 차라리 이왕 생겨난 목숨인데 풀이될 때까지 살아야 할게 아닌가.

《명심해라. 넌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제발 허황한 생각에 들떠 불필요한데 몸 잠그지 말아. 제 목에 직접 칼날이 닿지 않는데 핏줄이 막힐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더우기 그밤처럼 암담한 이 세상에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에게 리로운것이면 다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게 이 세상이야! 살아가

노라면 너도 자연히 이런 리치를 알게 될게다.》

하나 아들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걸 부정하고있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렇게 강건너 볼 보듯 하다가는 그 불뚱이 꼭 제 머리에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이지 않는 아들의 행동이다. 그대로 놔두면 어떤 엄청난 말이 나올지 가늠할수 없었다.

어디까지 가다가 보자고 했더니 이전 내가 제집에 불을 놓을 행위를 한다는 수작이 아닌가. 이 예비 알면 얼마나 안다구.

아들의 눈에서 두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별떡 일어섰다. 더이상

죽산 소고기를 계속 팔겠다고 나오든 이상...》

아들은 천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마 무슨 고통스러우면서도 무서운 결심을 하는듯싶었다.

《전... 더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말을 남긴 아들은 벌써 출입문가에 다가가고있었다.

지근우의 얼굴은 대변에 시퍼렇게 질렸다. 너무나도 가혹한 말을 남긴 아들에 대한 패배한 생각에 숨이 꺾막히는가싶더니 심장이 마구 활랑거린다.

《에익- 이 불효막심한놈! 이 예비의 말이 그렇게도 비위에 거슬린다면 어서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아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는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이어 확고한 결심이 섰듯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문을 열고 나갔다.

《광-》

출입문이 닫기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지근우의 흉벽을 쿵- 하니 울렸다. 아니, 하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듯 한 퇴성처럼 들려왔다.

